

담당자 연락처:
샤우나 슈다(Shauna Schuda)
홍보과 과장
630-468-7075
Shauna.Schuda@LionsClubs.org

즉시 배포용

캐나다 6 학년 키튼 해밀턴(Keaton Hamilton),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 대회 대상 수상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12 살 키튼 해밀턴 군은 평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밀턴 군은 자신의 에세이 수상작 ‘행동하는 친구(Friends as Leaders)’를 통해 세상의 시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옳은 일을 지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참가자들에게 ‘공감으로 이끌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키튼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며, 평화 증진 및 확대라는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라고 브라이언 시한 국제회장은 말했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평화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전 세계 라이온스클럽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라이온들은 지역의 학교와 가정의 도움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파악합니다.

해밀턴 군은 평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은 행운입니다. 저는 음식, 집, 그리고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수상작은 독창성, 구성, ‘공감으로 만드는 평화’라는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재능 있는 6 학년 학생은 온타리오 뉴마켓 라이온스 클럽에서 후원한 지역 경연대회를 통해 이번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해밀턴 군은 에세이를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지도자는 침묵하는 것이 더 쉬운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훌륭한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에세이는 지역사회에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친절함의 미소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 것의 중요성 또한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공감으로 이끌어 줄 누군가가 있다고 격려하며 에세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학교, 운동, 활동, 글쓰기 등의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시력장애 및 저시력자들이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해밀턴 군은 덧붙였습니다. 이 12 세 소년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천문학자가 되어 우주에서의 기회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해밀턴 군은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로서 5,000 달러의 상금과 상, 그리고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과 라이온의 날 행사 및 보스턴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해밀턴 군의 수상작 및 평화 수필 경연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회 웹사이트 lionsclubs.org/ko/peace-essa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전 세계 200 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140 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입니다. 국제협회는 평화 에세이 경연대회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에게 평화 및 국제이해 증진에 대한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행동하는 친구(Friends as Leaders)

키튼 해밀턴, 12세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는 자신이 5학년 신입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키 5피트(약 152cm)에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고, 운동을 즐기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나 사이에는 벽이 존재합니다(물론, 진짜 벽은 아닙니다). 잘 볼 수는 없습니다. 흰 페이지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사람들의 눈 색깔이 아니라, 책상, 의자, 마커의 색깔입니다. 이제, 검은색 머리에 키 작은 아이가 문 옆 고리에 걸려있는 나의 하얀색 지팡이를 쳐다봅니다. “어, 창같이 생긴 저게 뭐야?” 아이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슬프게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내 지팡이야.”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학교에는 무기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 몰라?” “그건 무기가 아니라 내 흰 지팡이야.” “너 이게 하얀색인 걸 알아?”

“무례하게 굴지 마.” 다른 학생이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눈이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사람 괴롭히지 마.”

그 학생은 나를 위해 나서주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나를 위해 나서주었습니다. 이것은 ‘공감으로 만드는 평화’의 한 예일뿐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조언을 해준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컴퓨터에, 종이에 연필로 또는 거꾸로든 나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공감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공감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살핌을 받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친구들이 학습 환경,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환영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그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세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소속감을 느껴야 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이웃이 문제가 있어 보일 때에도, 최소한 미소를 짓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응답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들이 할 일이며, ‘공감으로 만드는 평화’입니다.